

카타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사막 만든다



참석자들은 “build back better”의 항목들에 따라 장기 복구단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Berta Acero

2014년 5월 19일 - 카타르는 미래재해위험을 다루고, 협력 및 주요 조치강화를 목표로 한 재해위험경감과 복구의 주류화를 위해 국가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부처, 시정부기관과 NGO를 대표해 참석한 60명의 카타르 공무원들은 국제 복구 플랫폼(IRP) 이니셔티브와 UNISDR의 지원 하에 도하에서의 집중훈련을 끝마쳤다.

16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카타르는 물부족, 사막화, 토지황폐화, 해안 및 해양 생태계 위협과 같은 여러 환경위험에 처해있다.

참석자들은 “build back better”의 일환으로 재건과 복구재해위험경감과 복구활동 요소들을 수용하는 국가로서의 성공적인 계획, 관리, 이행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었다.

UNISDR 카이로 지역 사무실의 Fadi Jannan 씨는 “재해 발생이후 복구업무는 필요사항, 관심, 다른 관계자들의 역량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훈련은 세계 곳곳에서부터 최고의 복구 사례들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천이다. 재해 복구의 사전계획과 재해 위험경감의 주류화를 위해 카타르와 같은 정부기관들을 돕는 일은 미래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능력을 위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알제리, 레바논 내 국가적 행사들과 걸프 아랍국 협력회의를 위한 지역단위 회의를 따르는 세계복구플랫폼(IRP)이 시작된 이후 제 4회 아랍지역 재해복구계획 훈련이었다.

산자야 UNISDR 국제교육훈련기관(GETI) 소장은 “이는 카타르가 현재와 미래의 위험들 모두를 아우르는 재해경감의 개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라고 카타르의 재해경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카타르와 같은 정부기관들은 현재 재해 발생 후에 보여지는 기회들을 인식하며 재해경감과 복구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공동체 안에는 다른 정부들이 향후 재해위험경감과 복구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일본 고베에서 있었던 세계 재해경감회의 중에 168개 정부가 채택한 효고행동강령(HFA) 2005-2015 이행의 핵심 중 하나인 세계복구플랫폼(IRP)이 시작되었다. 이 세계복구플랫폼을 통해 향후 재해복구위험요소들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준비된 복구관련 교훈들을 공유하고 있다.

도하에서 있었던 재해 복구 계획 교육훈련은 상임비상위원회(Permanent Emergency Committee)와 UNISDR 이 민방위 집행위원회 총국에서 개최하였다.

날짜: 2014년 5월 19일

자료: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rab States (UNISDR ROAS)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

관련 링크

[2005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UNISDR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GETI\)](#)
[International Recovery Platform \(IRP\)](#)

키워드

주제: 역량 개발, 복구, 도시 위험&계획, 재해위험관리

국가: 카타르

지역: 아시아